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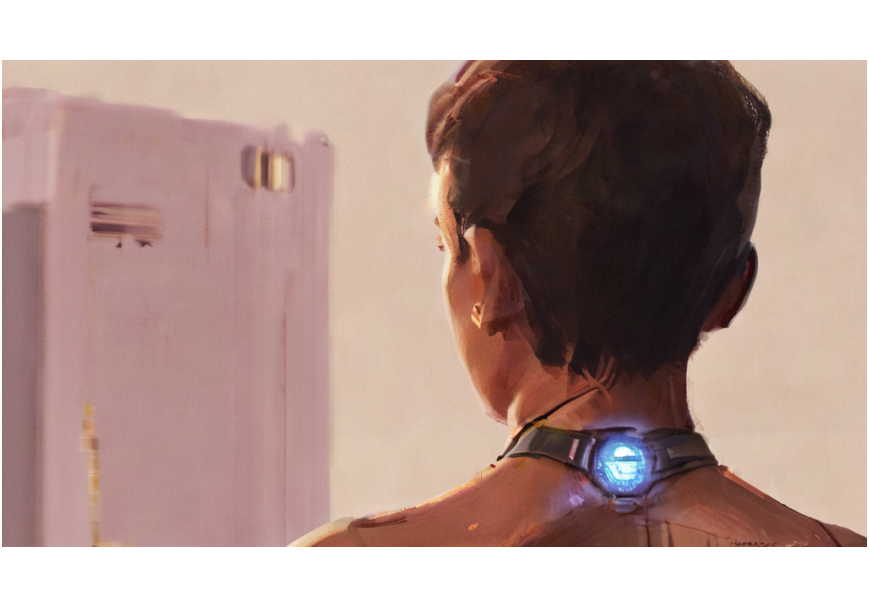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3

◆

한재호 단장의 국장은 성대하게 치뤄졌다. 수많은 사람이 한재호 단장에게 애도를 표하며 함께 행진을 했다. 분향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분향이 끝난 사람들은 국장이 치뤄지는 장소의 한켠에 마련된 오리엔티스 임시 진료소에 들어가 목 뒷쪽엔 칩을 심고, 이마에는 적외선 도장을 맞는 절차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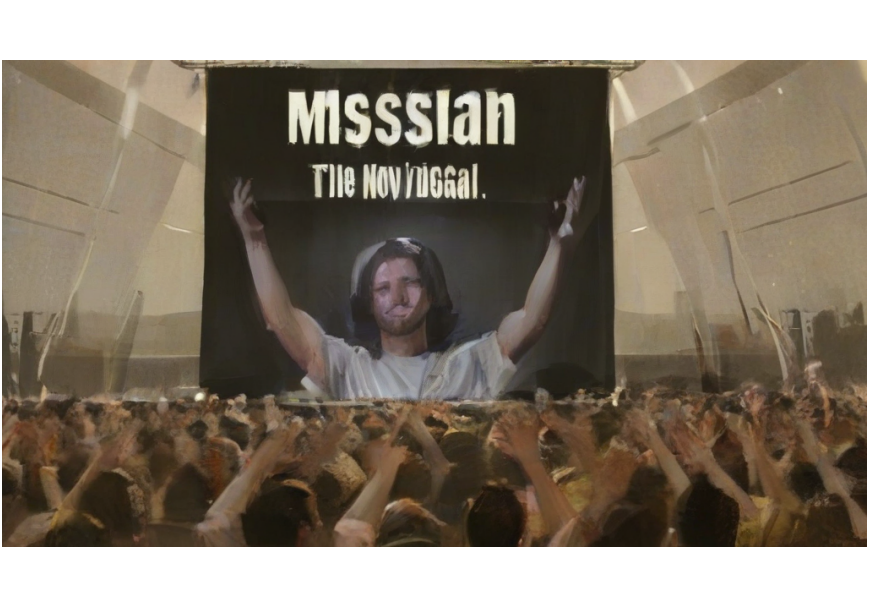


칩을 심는 작업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한재호 단장의 죽음이 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한 결과였다.

“한재호 단장님의 헌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전국민 클론 의무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 모두가 영생을 하는 현실의 천국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습니다.”

국장 메인 행사장, 마이크 앞에 선 은성이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을 뒤로 한 채 연설을 하자 수많은 추도객이 ‘한재호! 한재호!’ 연호했다. 모든 것이 단장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은성이 몸을 돌려 행사장에 걸린 거대한 사진을 올려다 보았다.

추도객들은 여전히 ‘한재호!’를 연호하고 있는 가운데, 은성이 추도객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두 팔을 올렸다. 그 순간 갑자기 대형 현수막 하나가 사진을 막으며 위에서 떨어지듯 나타났다.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이벤트였다.



마치 준비되어 있던 이벤트처럼 등장한 현수막에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은성은 갑자기 나타난 현수막의 내용을 읽었다.

[영생하되 자유를 잃어버릴 것인가, 한 번 살되 자유로울 것인가?]

대통령, 관료, 추도객 들 모두가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로에게 말을 걸면서 국장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사리판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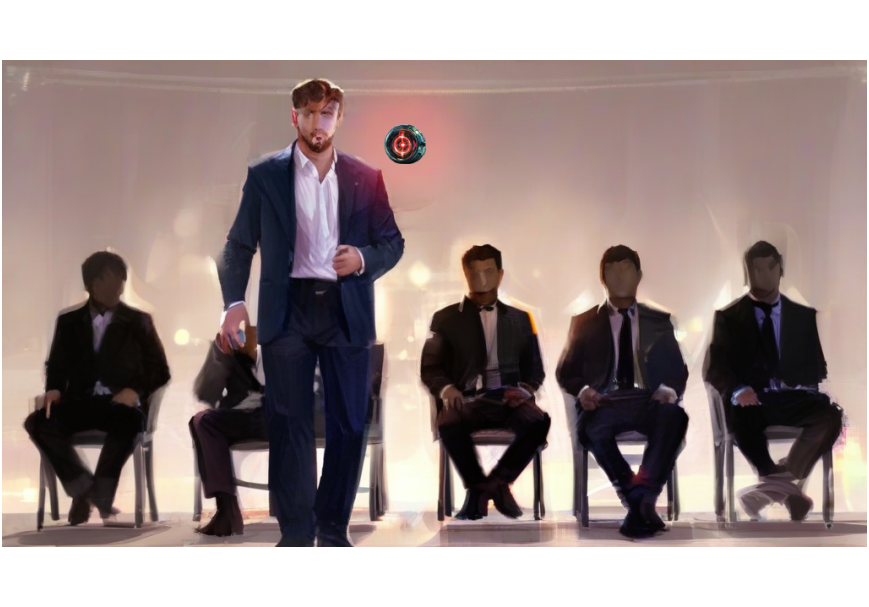
은성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이크를 잡으려 하는데, 무언가 이상한 조짐이 느껴졌다. 대통령과 관료들의 눈동자가 변하면서 마치 기계처럼 정자세로 고쳐 앉기 시작한 것이다. 누군가 대통령과 관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은성은 언제라도 전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았다.

[♬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

스피커에서 쌩뚱맞은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은성과 경호원들이 사태를 파악하려 주변을 살피는 동안 대통령과 관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에 맞춰 율동을 추기 시작했다.

[♬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래 이 닦자. ♬]

노래 가사에 맞춰 대통령과 관료들이 열심히 이를 닦는 포즈를 취했다. 지켜보던 추도객 일부가 웃음을 터뜨리자 당황해 하던 다른 추도객들도 점차 웃음을 터뜨렸다. 추도객들의 웃음이 바이러스 퍼지듯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동녘이 무대 위로 뛰어내리며 등장했다.



동녘의 머리 위로는 캣츠아이가 허공에 떠서 붉게 발광하고 있었다. 동녘이 대통령과 관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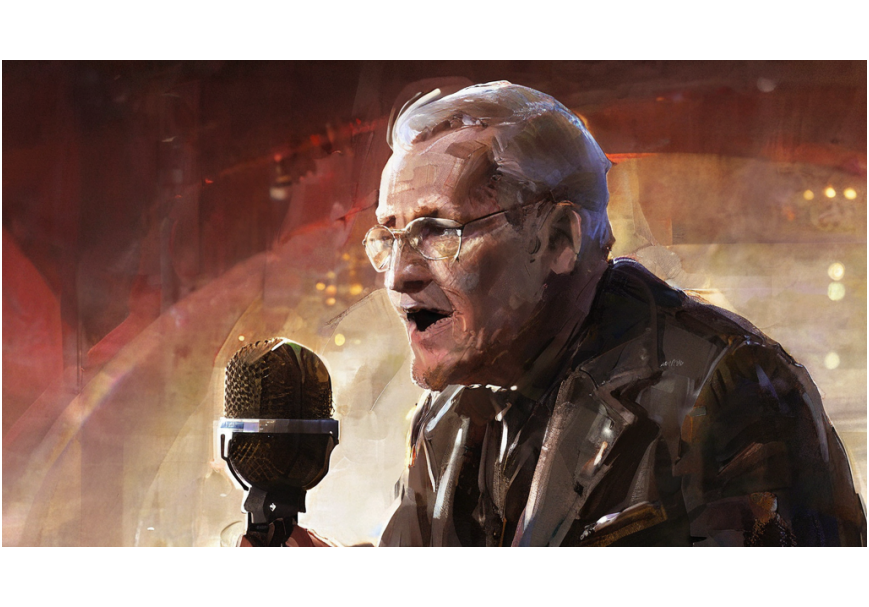
[♬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

동녘이 목을 닦는 시늉을 하며 춤을 추자, 대통령과 관료들이 똑같이 따라 춤을 췄다. 경호원들이 갑자기 나타난 동녘에게 총을 겨누며 공격하려 했지만 대통령과 관료들이 율동을 추며 동녘 주변을 감싸는 바람에 누구도 쉽사리 총구를 당길 수 없게 되었다.

어느새 몰려든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은성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성은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 고개를 저으며 무대 위에서 내려갔다. 대통령과 관료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동녘과 그를 감싼 대통령과 관료들 뒤로 서창과 코카, 사마엘 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노래에 맞춰 율동을 추는 대통령과 관료들을 방패로 앞세운 채, 서창이 마이크 앞에 섰다. 서창이 마이크를 잡자 노래가 멈추면서 동녘, 대통령, 관료들 모두 율동을 멈추었다. 소란이 진정되자, 추도객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DR. NEX 군단입니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한 추도객이 야유하는 소리를 내자, 주변에 있던 추도객들도 덩달아 야유하기 시작했다. 서창은 그런 추도객들의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시작했다.

“클론을 하며 영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저희를 싫어하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뀔 수 없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 죽어야 합니다.”

‘너나 죽어라!’ 야유가 연신 이어졌다.

“여러분의 야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과 관료들의 행동에서 보셨듯이 클론을 한 몸은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얼마든지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재호 일당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여러분의 자유를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야유로 일색이던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창의 연설 내용이 그만큼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반증이었다. 여전히 야유를 퍼붓는 사람도 있었지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영원히 살면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겠지요.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리엔티스를 설립했던 지후 단장이 갖고 있는 기술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한 번 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서창이 동녘에게 신호하자, 동녘은 무대 앞으로 대통령과 관료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서창 일행이 무대 뒤로 빠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무대 뒤로 나가는 서창을 향해 동녘이 질문했다.

“할아버지, 지후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 이렇게 소울라이딩 되지 않는 강한 정신을 가졌다면서요?”
“너는 나를 계속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니. 넌 지후가 아니라 동녘이야.”

서창이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동녘은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은성을 내려다 보았다.

“은성! 넌 은성이 맞지? 한재호 단장은 죽은 게 맞는 거지?”

은성은 동녘을 노려 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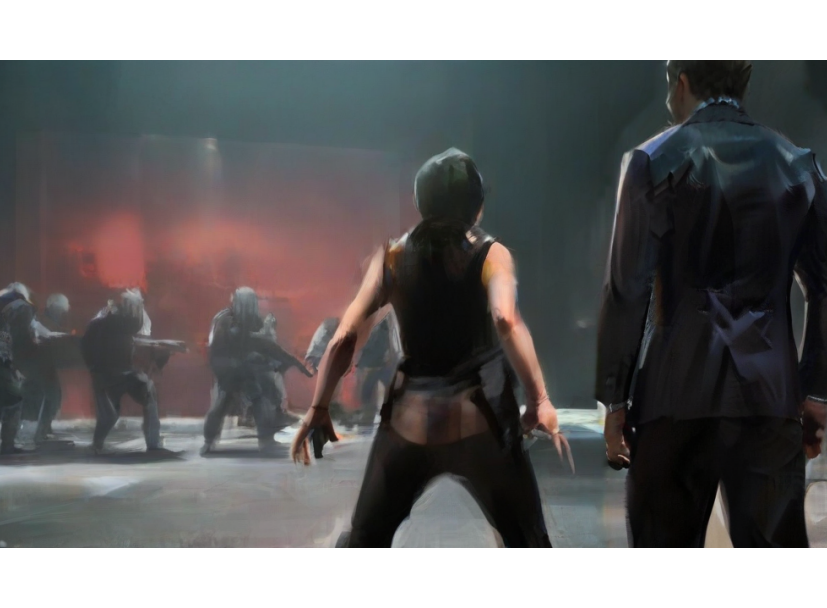
“은성아, 대답해줘! 넌 은성이가 맞지? 지후의 아들 은성이는 살아있는 거지?”

동녘이 답답해져서 고조되는 목소리로 은성에게 외쳤다. 목소리가 뒤로 갈수록 떨리더니, 동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동녘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자, 캣츠아이의 불이 꺼지면서 동녘의 손 위로 떨어졌다.

캣츠아이가 동작을 멈추면서 대통령과 관료들이 제정신을 되찾았으면서, 동녘을 보호하던 인간 방패가 사라졌다. 이를 간파한 경호원들이 동녘을 향해 다시 총구를 겨눴다. 대통령과 관료들이 동녘의 주변에서 흩어지기만 하면 총구를 당길 수 있는 준비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은성아! 넌 내 아들 은성이가 맞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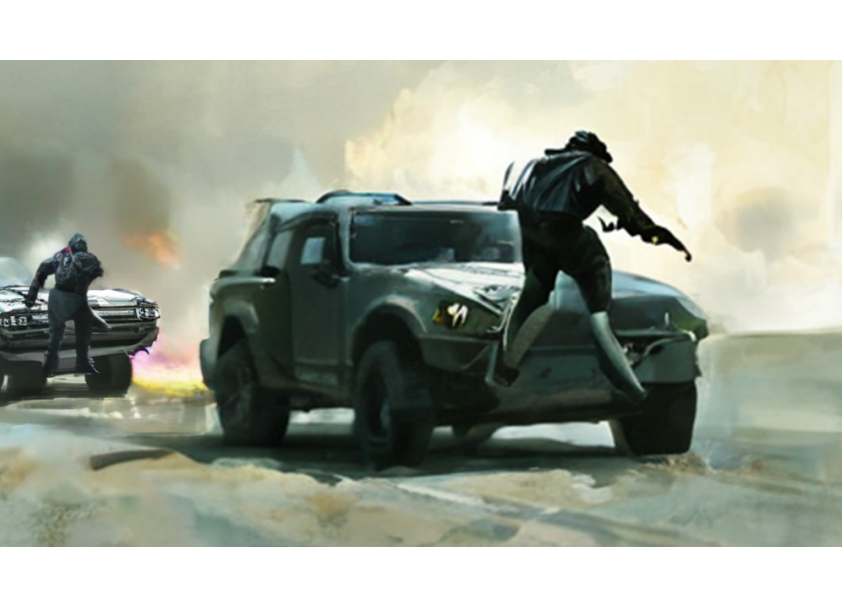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규하는 동녘을 보다 못한 코카가 나타나 동녘을 붙잡고 엄호한 채 무대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상황을 파악한 대통령과 관료들이 동녘에게서 멀리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코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동녘의 몸에 수많은 구멍이 났을 것이다.

경호원의 사격을 피해 무대 뒤로 빠져나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무대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오리엔티스 군단이었다. 오리엔티스 군단이 코카와 동녘을 생포하기 위해 다가왔다.

총구를 겨눈 채 살금살금 다가오는 오리엔티스 대원이 갑자기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저 멀리 날아갔다. 미리 무대에서 빠져나갔던 DR. NEX 군단이 차량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다.



Continued to ep.24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